

약속의 땅 Ⅲ.

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자에게 열리는 강력한 응답

1. 약속의 땅과 전쟁

사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다. 여리고 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믿음으로 싸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첫번째 전쟁이어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첫 전쟁에서 이겨야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은 '사기'이기 때문이다. 이길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하는 사람이 이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이긴다. 첫 전쟁이 이렇게 강력한 전쟁이라면 나머지 전쟁은 볼 것도 없다. 그래서 여리고는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원리는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전쟁이 있다.

* 사탄

(1) 사탄은 끈질기다 - devil is persistent

[누가복음 4: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13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실패 후 떠났다. 떠난 것이 포기한 것인가? 얼마 동안 떠난 것이다. 밤낮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다.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한다.

(2) 사탄이 어디에 있는가?

[요기 1:7]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왔나이다

사탄은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위치와 존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우는 사자처럼 정확히 삼킬 때를 노리고 있다.

(3) 사탄의 캐릭터 - 사탄은 집요하다.

[요기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의 질문을 유심히 보라.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질문은, 사탄은 욥을 연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사탄은 천사장 미가엘과 싸운다. 명심하라.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2. 여리고 함락 전에 있던 일

이스라엘에게도 여리고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다. '여리고'라는 약속의 땅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만약 '여리고'가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여리고 현장에 있던 일만 본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건은 함락 전의 일이다. 본 게임이 중요하다. 그런데 본 게임의 승패는 본 게임전에 이미 결판난다. 여리고 함락과 같은 중요한 일이 있다. 어떻게 하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여리고는 정해진 약속이다. 정해진 땅이다. 허락하신 땅이다. 그런데 그 허락하신 약속 앞에 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하겠는가?

(1) 정탐하다 - 여호수아 2장 (움직여야 한다)

목숨 건 정탐을 한다. 여호수아 2장이 중요하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다. 여리고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여리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두드려 보아야 한다. 밟아 보아야 한다. 만나 보아야 한다.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 상상이 아니다. 추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현장을 정탐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고,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의 기도를 더 깊게 한다. 땅이 없는 하늘은 없다. 명심하라. '하늘과 땅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하늘은 있는데 땅이 없는 사람이 많다.

(2) 목숨을 걸고 정탐 - 하이 리스크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갔을 때 그들의 정체가 탄로 났다.

[여호수아 2:2-3, 개역한글] 2 후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 왔나이다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은 적의 스파이다. 스파이의 핵심은 비밀이다. 스파이의 정체가 탄로 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엄청난 위기이다. 또 누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가? 이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의 기지로 정탐꾼을 숨긴다. 목숨 걸고 한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하이 리스크'가 있다. 여리고라는 엄청난 승리만 좋아하지만, 사실 '강력한 위기'가 있다. 여기에 원리가 있다.

여리고는 '위기' 앞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함락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여리고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라는 장치를 두신다. '믿음' 때문이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다.

3. 정탐의 결과

[여호수아 2:9-11, 개역한글]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엄청난 위기를 감수하고 여리고를 정탐했다. 위기를 감수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엄청난 소식이 9-11절이다.

(1) 여리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아직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다. 그런데 전쟁 전에 이미 그들은 엄청난 소식을 여리고 거민에게 들었다. 여리고는 이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탐꾼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는가? 놀라운 소식이다.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소식이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는 자에게 놀라운 소식과 확신으로 열린다. 여리고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 거민들

그들이 들었던 가장 강력한 정보는, 여리고 거민이 하나님의 존재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한다. 위기를 감수하면 이런 사실들을 알게 한다. 사탄이 거대한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은 우리가 움직일 때 두려워한다. 명심하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정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보이는 여리고에 놀려 있었을 것이다.

4. 위험에 도전한 자에게 열리는 강력한 응답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알아야 여호수아 6장의 속제가 풀린다. 여리고 함락 전 목숨 걸고 도전한 정탐을 통해 이미 그들은 응답을 얻었다.

(1) 이스라엘의 확신

[여호수아 2:24, 개역한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목숨 걸고 정탐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다.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무슨 말인가? 게임 끝났다는 것이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여리고는 이미 우리 것이구나.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리고를 돌 때 우리는 그들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횡수를 더하여 여리고를 돌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더 기뻐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리고는 무너진다. 저 땅은 드디어 우리의 땅이구나' 확신과 기쁨으로 그 땅을 돌았을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 위험을 넘어서 도전한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큰 위험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늘의 보상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도전이 없는 정체된 신앙이다. 독수리라면 독수리답게, 사자라면 사자답게 살아야 한다. 닭은 하늘을 날기 위해 절벽에서 높은 곳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이언 킹을 보라. 고양이에게 하이에나의 도전은 없다. 독수리와 사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죽은 신앙, 정체된 신앙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없다. 두려워 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실재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여리고는 그들에게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코앞에 있는데 도전하지 못해 얻지 못한다면... 그러므로 도전해야 한다.

(2) 라합 가정의 구원

[여호수아 2:17-21, 개역한글] 17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21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일로 라합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라합 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라합이 위기를 감수했기에, 그들에게 돌아온 응답은 가장 소중한 가족의 구원이었다. 놀라운 소식이다. 리스크가 없는 리턴은 없다. 도전이 없는 보상은 없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이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이 리턴이 있다는 것이다. 도전해야 한다. 리스크를 알아야 한다.

(3) 약속을 믿는 믿음

미리 예방주사 백신을 맞게 하셨다. 내 말을 지키고 따른다면 형통하겠다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상황과 환경에 적용시키는 하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말씀의 백신이 이미 있다. 말씀의 백신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있다. 그 믿음 위에 나아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자들이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아야 한다. 내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십시오. 준비되었나이다' '도전하라.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인생으로 일어나라'